

비단길에서 피워낸 '소박한 아름다움'

권영필 지음 《실�크로드 미술》

'실�크로드'의 정경은 우리에게 태고적 숨결을 느끼게 한다.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모래파도와 낙타행렬,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땅. 동과 서가 서로 교통하며 넘긴 흔적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진기한 문화유적으로 남아 있는 곳. 중국의 한(漢)과 고대 로마를 잇는 교역로 비단길을 따라 엇갈리고 겹쳐진 다양한 유적이 지금도 이천년전의 문화를 고스란히 전한다.

중앙아시아와 한국미술의 '소박미'

권영필 교수의 《실�크로드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는 실�크로드를 통해 어떻게 한국미술이 문화적 교류를 이뤄왔는지 뿌리를 캐어보는 치밀한 작업을 시도한다. 그 시도는 열세편의 글과 250여점 컬러도판의 자세한 해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가 실�크로드 미술을 동서 문화 패턴의 '주변'으로 전락시켰다면 이 책은 중앙아시아문화를 당당히 '중심'에 올려놓는다. 서구학자들은 실�크로드의 기점을 중국의 '장안'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집착해 동쪽으로의 확산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책은 경주가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역사도시임을 환기시킨다.

중앙아시아미술과 한국미술의 큰 맥은 '소박미의 창출'이라는 공통된 시각에서 짚어진다. 회화는 물론 목공예·도자공예·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물들이 그 실재를 보여준다. 삼국시대 신라고분 출토품에는 중앙아시아적인 색채가 짙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다. 대부분 모방해서 만든 복제품인데, 여기에 신라인 특유의 조형감각과 표현질감이 나타난다.

예컨대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 신라 토우는 서부 중앙아시아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형상은 성적 자태의 표현이며 곡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와 관련된다. 여기서 신라 토우는 페르시아 전통 흐름을 다룬 조형물 유입과 함께 받아들였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라 토우는 페르시아 토우와 달리 눈과 입을 간단히 칼집을 내고 세부묘사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인간미와 생명감을 느끼게 한다.

또 거울이나 화장도구, 향을 담은 그릇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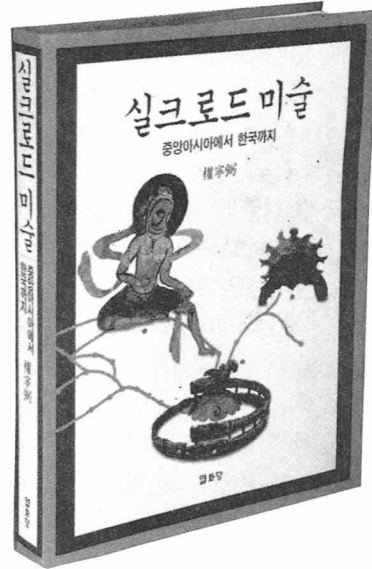
중앙아시아와 한국미술의 문화교류의 특징을 보여준 신라의 인물 토우들.

로 알려진 '염(蠃)'에서도 중국을 원류로 하면서도 중앙아시아와 고구려의 기물은 각기 미적 성향에서 맥이 통함을 알 수 있다. 요란한 장식 없이 문양이나 채색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원류인 중국 염이 호사스럽게 발전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분히 기질적인 비장식주의는 크게 보아 질박한 '소박미'의 창출이다.

서방의 영향 받은 '유리문화'

한편 한반도에서 쓰인 유리공예는 서방의 영향을 강하게 증명한다. 통일신라시대까지 유리는 보석과 같이 팔찌, 목걸이 등 장신구에 활용됐고 의식기와 사리장치의 묶도 했다. 주로 삼국시대의 찬란했던 유리문화는 그 구성성분이나 조형에서 서방과 밀접하다. 발굴품을 볼 때 우리가 중국 서방에서 실�크로드의 사막루트를 통한 동점 경로가 밝혀지는데, 특히 북중국 루트를 따라 신라에까지 연장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복잡한 배경 속에 입수된 삼국시대의 유리는 지배계층의 총아가 됐다. 2~6세기 출토품을 보면 유리 성분이 로마유리에 속하고, 그릇 형태도 서방의 것과 같은 유형이다.

향남대충 남부에서 출토된 <봉수형병>이 그런 사실을 입증한다. <봉수형병>은 손잡이를 짙은 남색으로 처리, 목 부분에 남색 우리사를 띠줄림법으로 여러번 감은 모양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오이노코에병'은 육조 이래 중국에 입수되면서 봉황의 머리를 병구에 장식하는 모양으로 변형, 오늘날



통칭 '봉수형병'이라 부르게 됐다.

이밖에 신라의 유리잔이나 유리구슬, 유리판 장식 등 대표적인 유리공예품들의 대부분은 서방제품이다. 신라지배층이 어떻게 이런 물건을 선호하게 됐는가에 대한 해답은 간단치 않다. 유리구슬은 금관과 함께 출토되어 그 그릇의 이용자는 신라 최고 지배계층임을 알 수 있다. 로마 유리는 호사의 추구라기보다 선진문화를 좇으려는 '외방성'의 징표로 해석된다.

이 책의 강조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한국미술을 중국미술의 눈으로 파악하려는 '문화패권주의 미학'을 배격한다. 그런 연장에서 실�크로드 지역의 특수성을 중심에 놓고 실�크로드 미술을 재해석한다. 다른 하나는 실�크로드 미술문화가 한국에까지 이르는 경로를 밝히려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미술품 '코리아 컬렉션'은 실�크로드 문화가 동쪽으로 확산된 경로를 밝히는 단서다.

이 두가지 관점에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은 '소박성'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에 이르는 실�크로드 미술의 특성을 저자는 '소박주의'의 키워드로 해석한다. 질박함과 단순성,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곧 우리 미술에 내재한 실�크로드 미술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북방 중앙아시아 미술의 연관을 살피면서도 우리 미술의 독자적인 기질을 함께 보여주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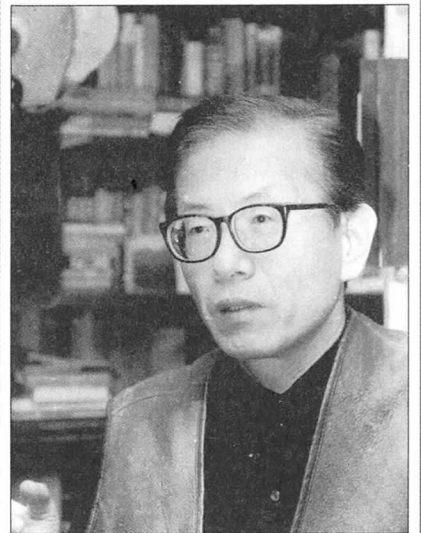
— 김지원 기자

열화당/B5/320면/40,000원

저자의 얼굴

"실�크로드의 매력은 무한"

권영필 교수



권영필 교수(56,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에게 실�크로드 미술은 2천년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신선한 오아시스다. 이번에 모은 열세편의 논문은 오랜 세월을 간직한 실�크로드 지역의 무한한 매력에 이끌려 탐구한 결과다. 이 연구 결정은 단순한 논문모음이기보다 일관성 있는 새로운 집필이다. 권교수는 서울대 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9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다 프랑스 유학 때 중앙아시아미술에 빠져든 이후 지금까지 이십여년 동안 실�크로드 미술에 폭과 깊이를 더해왔다.

책으로만 대하던 실�크로드는 유네스코가 주관한 '국제실�크로드 학술 대담사' 행사로 처음 실체와 맞부딪칠 기회를 가졌다. 오랜 항수 끝에 디딘 '실�크로드' 탐사는 이제까지 권교수가 세웠던 가설을 입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제일 보고 싶었던 '돈황벽화'는 유구무언의 경지로 내몰았다.

90년 탐사 이후 지난해까지 네차례 다른 비단길을 걸었고, 올 봄과 여름의 탐사 일정도 이미 잡혀 있을 만큼 실�크로드의 매력은 무한하다. 첫 탐사 때 소중히 담은 비단같이 고운 모래는 아직도 권교수의 서재에서 아득한 태고의 바람을 일으킨다.

이번 책은 곧 권교수의 실�크로드 미술론의 중심사상이다. 이제 중국과 일본의 실�크로드 미술연구의 사관과 미학을 밝히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또 오랜 관심사였던 <돈황벽화 100선집>도 출판할 예정이다. ◆